

도시통합 사례와 의의

북유럽 ‘외레순드[Oresund]’ 의 사례

KMI 국제물류연구실장 이성우

목차

- 01 용어정의**
- 02 외레순드 사례**
- 03 고민과 접근방향**
- 04 통합방안 제안**



01 용어정의(1)

초국경 교류 (cross-border cooperation)

- ✓ “어느 나라의 도시나 지역이 다른 외국의 특정 도시 혹은 지역과 인적, 물적, 문화적으로 교류하면서 긴밀한 네트워크(cross-border networks)를 형성하는 것”
- ✓ 이는 국가적 차원의 외교나 초국가 협력, 국가 내부지역간 협력과는 다른 개념

덴마크의 코펜하겐과 스웨덴 말뫼 통합도시 외레순드(Oresund)가 실질적인 사례

우리나라 중심으로는 개념적 접근이 있는 부산과 일본 규슈, 인천과 중국 상하이 혹은 청도 지역이 사례

통합
요인

- ✓ 비전공유 : 명료하고 설득력 있는 미래지향적 비전과 전략
- ✓ 경제적 기능과 역할 배분 : 경제적 부가가치 확보 가능성, 비관세장벽과 자유로운 인구이동, 유사한 산업구조
- ✓ 행정절차/권한배분 : 정치구조 차이 완화를 위한 개방성, 투명성
- ✓ 비용 분담과 재정적 확보 : 공정한 비용 분담, 안정적인 자원 확보
- ✓ 일상 생활과 문화적 장벽 해소 : 공통언어, 상호 문화 이해, 공동 교육 등

▶▶▶ (주체) 외레순드 위원회(1993) 설립

- ✓ 정치적 통합의사 결정기구로 경제, 제도부문에 초점
- ✓ 정부(GO)와 비정부(NGO)의 중간형태로 운영
- ✓ 다자간 협업, 다중심 거버넌스의 중심체 및 연결체 역할

02 | 외레순드 사례(2)

▶▶▶ 성공요인

1) 비전공유

- ✓ “20년까지 이 지역을 유럽에서 가장 매력적이고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곳으로 만들자”로 실업 및 도시환경 타개 목적
- ✓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역동적인 월경개발과 효과적인 통합의 수혜를 받는 지역이 되는 것으로
- ✓ 4대 핵심과제로 교육과 혁신, 문화와 여가, 매력있고 집적된 고급노동시장, 우수한 접근성과 이동성
- ✓ 이동성 증대 → 생산성·인구·노동력 증대 → 시장성장 → 인구 및 기업 유입의 선순환 구조 구축
- ✓ 3, 5, 10년(기본계획) 단위 계획 수립

02 | 외레순드 사례(3)

▶▶▶ 성공요인

2) 경제기능과 역할

- ✓ 다른 산업 구조(제조업 vs 서비스업) → 동일산업(부가가치 서비스로 지향)

3) 지역격차 / 사회갈등 방지

- ✓ 저소득 인구 유입이나 편중 지원/개발 등 방지 필요
- ✓ 지역별 클러스터링 전략(의료, 물류, IT, 환경, 나노 등)
- ✓ 공론의 장 마련(중앙/지방 정부 개입)

4) 행정 / 거버넌스(분권화)

- ✓ 지방분권 및 행정구조 정비 후 지방권한 증대 후 상호 협력
- ✓ 협력체 구성 : 위원회, 시민/사회단체, 시장/기업주체, 외부전문기관(EU), 정부·행정기관(덴마크, 스웨덴) → 다중심 거버넌스

▶▶▶ 성공요인

5) 비용의 분담과 재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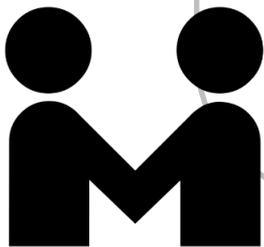
- ✓ ① 지방분권 ② 명확한 공동투자/배분 ③ EU의 장기적 지원 프로그램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동 재정지원 + EU 지원
- ✓ 외레순드 다리건설(50:50), 다른 사업들도 대부분 50:50
- ✓ 교류지원 프로그램/제도/인프라 : EU 50 / 외레순드 50

6) 일상생활 / 문화적 장벽

- ✓ 비슷한 언어, 문화, 소프트웨어 통합 필요
- ✓ 교육체계 통합(영어, 대학 공동교육, 외부 우수인력 유입 장려)
- ✓ 기존 양국의 30여 개 법률을 7개로 통합 간소화, 규제완화 등

비전
공유

- 한중 양국간 미래 비전 공유 가능한가?
➔ 경제성장, 평화유지 등
- 선순환 구조를 위한 이동성 증대 가능한가?
➔ 한중간 무비자 혹은 무여권 이동 등





경제기능과
역할

- 현재 유사한 산업구조(한국 제조 + 서비스, 중국 제조)인데, 상호 통합을 통한 유사 산업구조화가 가능한가?
- 제조업보다 서비스업으로 경제구조 변화가 상호 필요한데, 10년 정도의 산업구조, 기술 차이 등에 대한 극복 방법은?

지역격차/
사회갈등
방지

- 저소득 인구 유입이나 편중 지원/개발 등 방지를 위한 양국간 합의가 가능한가? 한중간 동등한 영향력이 가능한가?
- 지역별 클러스터링 전략 등은 가능하나 이를 만들기 위한 상호 공론의 장과 같은 플랫폼 마련은?



행정/
거버넌스
(분권화)

- 위원회 설립은 어떻게?
- 한국과 중국의 지방분권화 정도는?
➔ 오히려 한국의 문제가 더 심각할수도
- 문화적, 사회적 차이로 과연 다중심 거버넌스가 가능할까?



비용의 분담과 재정

- 지자체의 재정이 그 만큼 튼튼할 수 있는가?
- EU의 역할 은 과연 누가 할 것인가? AIIB?
- 국제기구 + 중앙정부 + 도시간 네트워킹이 가능한가? 특히 한국이 가능한가?



일상생활/
문화적
장벽

- 공통언어로 영어가 가능 할 것인가?
-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이 가능한가?
- 초국경 대학연합이 가능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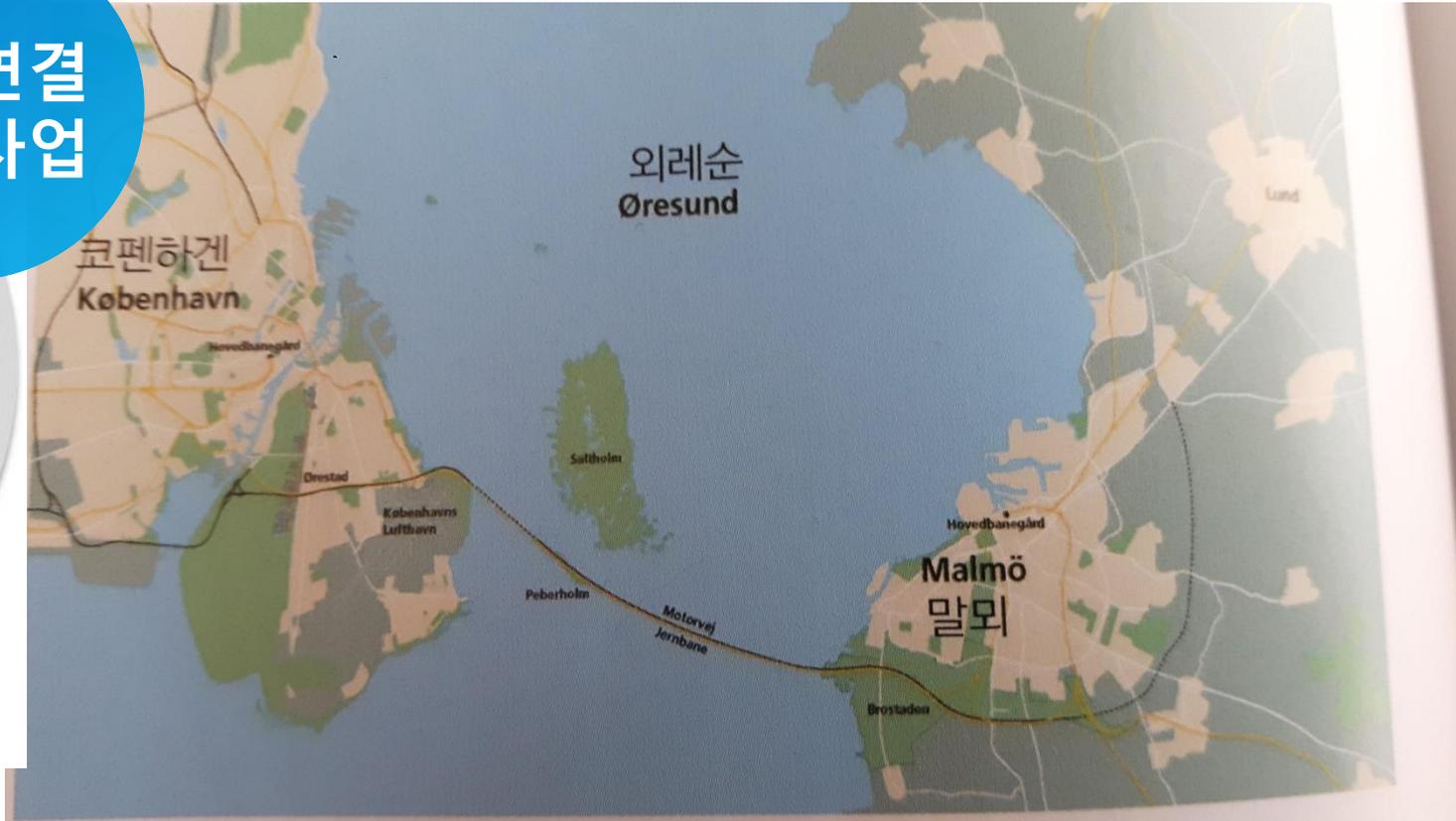


04

통합방안 제안

교량연결
토목사업

- 한중 해저터널이 대안 사업이 될 수 있는가?



통합항만
공사 설립

- '코펜하겐(여객)-말뫼(화물) 통합항만공사' 설립
- 언어와 통화단위가 다를 뿐 아니라 지리적으로 떨어진 항만공사 첫 통합사례
- UNCTAD에서 제4세대 항만의 효시라고 보고 소모적 경쟁이 아니라 개별 역할을 분화함
- 우리나라 인천, 평택항 vs 중국 청도항, 상해항 통합항만공사 가능성은?



경제특구 통합

- 우리나라 경제특구 vs 중국 자유무역시범구 통합 가능성?
-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경제구조 전환 목적이라는 공통 사항
- 반면, 금융, 통관, 검역, 투자, 환경, 지적재산권, 분쟁조정, 공용언어 등에 대한 조율 필요





Q&A

Thank you